

# 충성대신보

제 191호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劇出을 先導한다.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장광선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황수현 / 논설위원 황수현 송경재 민병후 / 편집담당 김진규 / 편집국장생도 이경미 / 충성대신문사(054)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02 학교소식 | 학교 창설 53주년 기념식

03 학교소식 | 학교를 빛낸 충성인

04 학교소식 | 생도의 멋과 낭만 · 2021 충성제

06 학교소식 | 전 · 출입 및 전역 · 퇴직자명단

07 학교소식 | 생도들의 병과 선호도

09 생도광장 |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10 충성대칼럼

12 교양 | 트렌드 코리아 2021 <# 필환경>

14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 명예와 전통을 계승하며 세계 속에서 빛나는 명문사관학교

### 도약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 제 53주년 창설기념식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15일,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충성연병장에서 학교장(소장 장광선) 주관하에 기간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5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교 창설 53주년을 자축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학교 장병과 사관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외부 초청 인원 없이 학교 장병 및 사관생도들만 참석한 가운데 부대 약사 보고, 축전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후 학교 장병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체력단련과 더불어 화합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교수부 민병후 중령 등 9명의 간부가 학교 창설기념 및 우수군무원 유공자로 선발되어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학교 출신



4성 장군들도 축전을 보내어 창설 53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학교장(소장 장광선)은 기념사를 통해 "충성대인들이 걸어온 지난 53년은 '조국, 명예, 충용'을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실천하면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소임을 다해 온 세월이었다"며, "군의 미래 주역인 생도들이 올바른 품성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제반 노력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령 임문택



## 주한 佛(프랑스) 국방무관 초청 정책 대화



▲ 프랑스어학과 생도들과의 간담회 모습

지난 9월 16일, 주한 佛(프랑스) 국방무관 대령 씨릴 듀퐁(Cyril Dupont)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수부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과 정책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교가 佛 육군사관학교로

의 국외 교육, 양교 교류협력 등 올해 진행되는 韓·佛 합참 군사협력토의(11월)에 의제로 올린 사항들을 사전에 협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 대화 간 학교는 우수생도의 佛 육

등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책 대화가 끝난 후 프랑스어학과 생도와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주무관 길진규

군사관학교 영어학기 과정 참가, 학교장, 교수/교관(훈육관)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교류협력 MOU 체결



▲ 프랑스국방무관 씨릴 듀퐁(Cyril Dupont, 좌측에서 3번째)과 학교 주요직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57기 장석수 생도, '도전! 나도 명강사' 우수상 수상

국방부,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나의 군 복무 이야기' 주제

지난 10월 7~8일 진행된 국방부 주관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에 참가한 57기 장석수 사관생도가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자리에서 있는가? 나는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우수생육군 참모총장 상장, 상품권 30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도전! 나도 명강사'는 '나의 군 복무 이야기'를 주제로 각 군에서 추천한 16개 팀 19명의 장병이 도전해 강연 능력을 뽐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 점수와 100명의 육·해·공군 방청 장병의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청 장병 없이 전문 심사위원과 우수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된 장병 6명이 심사를 맡았다.

대상 2명과 최우수상 4명은 국방부 장관 상장을 받았고, 1부(육군) 우수상 2명에게는 육군참모총장 상장, 2부(해·공군)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해군·공군참모총장 상장이 수여됐다.



▲ 우수상을 수상한 57기 장석수 사관생도

중령 황수현

### 제8회 화랑커맨디프(COMMANDEF)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COMmand(지휘하라), MANeuver(기동하라), DEFeat(승리하라)

지난 10월 4~6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8회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에 참가한 팀 카이와 팀 알타이카 생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경쟁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해 '화랑전투기술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지휘하라(COMmand)', '기동하라(MANuver)', '승리하라(DEFeat)'는 의미를 담아 대회 이름을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로 변경했다.

지난해까지는 육사 생도들만 참가했지만, 올해 대회에는 3사 생도들이 참가하며 규모가 커졌다. 176명의 육사·3사 생도들은 총 16개 팀(육사 14팀, 3사 2팀)을 이뤄 공격·방어 작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술적인 상황과 연계한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한, 내년 대회부터는 올해 참여하지 못한 해사, 공사 사관생도와 더불어 참가대상을 학군 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회 결과, 팀 카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팀 알타이카는 팀 카이와 함께 본선에 참가하여 학교를 빛냈다.

- \* 팀 카이(최우수상)  
김현성, 송승연, 하재우, 권태웅, 이평화, 조형진, 김진산, 정유준, 김현준, 박동민, 니총명(이하57기)
- \* 팀 알타이카(본선)  
황찬희, 이상현, 송인영(이하 57기) / 최슬휘, 박소현, 이수영, 신지민, 권희재, 윤준용, 유호진, 이지명(이하 58기)

육사는 지난 2015년부터 생도들의 전투체력, 소부대 전투기술 강화를 위

주무관 길진규



▲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 카이



▲ 본선에 진출한 팀 알타이카

### 임종범 상병, 사이버안보 논문 공모전 수상

한국정보보호학회 & 정보세계정치학회 주관, 국가정보원 후원 공모전서 이름 올려

학교 교육지원대대 임종범 상병이 10월 5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사이버안보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성공적인 사이버 억지 전략에서 강대국, 중견국 및 약소국, 그리고 비국가 행위

자 간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어학 조교로 근무하는 임 상병은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데이터 응용통계와 국제정치를 2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였고,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국제정치 연구를 지속해 21세기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 임종범 상병이 논문을 준비한 학교 도서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위 박광선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역량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연구리더육성

학교 화학환경과학과 교수이자 군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종훈 중령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1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9월 1일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 단위의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종훈 교수의 연구과제는 Ultrasound+catalyst(초음파+촉매)와 adsorbent(흡착제)를 이용한 dioxin(다이옥신) 처리연구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총

2억 65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한종훈 교수는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토양의 안전한 현장처리를 지향하는 초음파와 흡착제 활용에 관한 연구로, 초음파를 통한 다이옥신의 탈착과 일부 분해, 잔여 다이옥신의 흡착제 거를 위한 최적 조건을 파악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종훈 교수는 한국연구

재단을 통해 공고된 연구과제(수계 PPCPs 분석 및 PUV/US를 이용한 처리에 대한 연구, 2017)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하수도 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 군환경연구센터는 군 유일의 전문기관으로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주무관 길진규



교수 한종훈 중령  
교수부이학처  
화학환경과학과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주무관 길진규

생도의 멋과 낭만

# 2021 충성제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박 2일 축소 시행

학교는 10월 14일 사관생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이틀 동안 '2021 충성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행사를 축소 시행했다. 푸드트럭, 가족·친구 방문, 외박 등은 없었지만, 학교의 전통 축제인 만큼 내실 있는 언택트(Untact) 개념의 행사를 시행했다.



“ 1일 차인 14일 오전, 생도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체육대회로 충성제의 막을 올렸다. 중대별 응원전, 축구, 발야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각 중대가 예선을 치러 기량을 뽐냈다.

또한, 드론부, 국궁부, 사진부 등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부서들이 체험 및 전시회를 열어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학교 군악대와 육군 군악의장대대가 함께 소조밴드 및 국악, 의장대 공연을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받았다. ”



“ 공연이 끝난 후에는 정신전력, 군사학, 일반상식, 년센스 등의 문제로 도전! 충성 골든벨이 진행되었다 ”



“ 2일 차인 15일 오전에는 학교 창설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창설기념 행사 후 오후에는 체육대회 결승전을 치르고 응원전도 펼쳐며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었다.

아간에는 각 생활관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충성제의 하이라이트인 충성대의 밤 행사를 사전에 녹화하여 언택트로 시청했다. 특별 장기자랑 공연, 중대별 군가 가창 경연, 생도 응원부시리우스, 생도 그룹사운드부 공연을 보며 서로 간의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감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생도들의 감사한 사연을 담은 감사영상 시청,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리운 부모님들과 지인들의 응원 영상 시청을 끝으로 2021 충성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디딤돌, 학군교류협약

육군3사관학교(소장 장광선)와 경남정보대학교(총장 추만석)는 10월 5일 경남정보대학 대회의실에서 학군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을 통해 경남정보대군 사학과 학생들의 병영현장실습을 비롯해 연구, 입시 및 취업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양 기관이 상호 교류·협력하게 될 예정이다.

주무관 김민수

## 학술교류 협정대학 교류 방문 행사

주무관 박원형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초빙 강연(10.14) '바람직한 21세기 군 간부'



구미대학교 학군협력방안 토의 (10.14)

### 2021년 학군교류협약 체결 대학

1. 한양여자대학교(1.8)	5. 동양미래대학교(2.16)	9. 대구보건대학교(5.31)
2. 대림대학교(2.3)	6. 배화여자대학교(3.23)	10. 충북보건과학대학교(6.15)
3. 유한대학교(2.3)	7. 포항공과대학교(4.21)	11. 경남정보대학교(10.5)
4. 장안대학교(2.16)	8. 경북대학교(5.6)	




경남정보대학교(10.5)



울산과학대학교 학군협력방안 토의 (10.20)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학군협력방안 토의(10.21)

## 9, 10월 학교 간부 전·출입 및 전역·퇴직자 명단

###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근무지원단 병원 간호장교 중위 이도희
- 교수부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대위 변혜인
- 생도대 체육학처 체육학교수 대위 김민경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소령 장진아
- 행정부 지원처 재정처장 중령(진) 신창헌
- 교수부 인문학처 영어학교수 소령 박주훈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투기술학교관 대위 김정수
- 학교본부 학교장실 행정실장 소령 박희영
- 생도대 8훈육대장 소령 이준맹
- 근무지원단 본부근무대장 소령 오동현

- 생도대 체육학처 체육학교수 소령 용성주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투기술학교관 대위 최민
- 교수부 공학처 전자공학학교수 소령 이소명
- 교수부 인문학처 영어학교수 소령 장상혁
- 생도대 8훈육장교 대위 김희훈
- 근무지원단 영선대장 소령 안성준
- 생도대 인사담당 6급 곽미란
- 행정부 지원처 예산담당 6급 손미경
- 학교본부 군사경찰대장 소령 신철호
- 생도대 7훈육장교 대위 김민수

- 생도대 군사훈련처 리더십교관 소령 박철진
- 근무지원단 병원 선임간호장교 소령(진) 김미선
- 학교본부 학교장실 전속부관 대위(진) 이상희
- 교수부 이학처 화학환경과학과 교수 소령 이선희
- 교수부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교수 소령 정이훈
- 생도대 5훈육장교 대위 최병찬
- 근무지원단 정보통신대장 소령 고상우
- 근무지원단 병원장 중령(진) 이효진
- 학교본부 감찰실장 중령 인태환
- 생도대 군사훈련처 전술학과장 중령 김용태

###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근무지원단 영선대 7급 정충원 → 11탄약창
- 생도대 5훈육대장 소령 정우람 → 6군단
- 근무지원단 병원 선임간호장교 소령 변혜경 → 27사단
- 행정부 지원처 재정과장 소령 김은수 → 2군단
- 생도대 군사훈련처 일반학교관 소령 김병일 → 3군단
- 생도대 8훈육대장 소령 오범진 → 합동참모본부
- 학교본부 교무기획실 교무기획과장 중령 김남식 → 육정작부
- 행정부 지원처 인사근무장교 중령(진) 김윤오 → 5포병여단

- 교수부 이학처 컴퓨터학교수 대위 김희중 → 방사청
- 생도대 7훈육대장 소령 이진학 → 수방사
- 행정부 지원처 사제인전장교 소령(진) 장인철 → 특전사
- 근무지원단 정보통신대장 소령 신진철 → 31사단
- 교수부 사회학처 법정학교수 소령 김성남 → 육군대학
- 근무지원단 본부근무대장 소령 이찬호 → 육군대학
- 근무지원단 병원장 중령 고은자 → 수도병원
- 학교본부 감찰실장 중령 진기석 → 1군지사

### 전역 퇴직 영광스러운 전역·퇴직을 축하드립니다 ♥

- 근무지원단 보급근무대 영양사 7호 구태연
- 학교본부 평가관리실 6급 최용식
- 군사훈련처 전투기술학교관 나군 유정호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 “MZ세대” 생도들의 병과 선호도

57기 기자생도 류인성, 원종량

흔히 ‘요즘 세대’라고 불리는 ‘MZ세대’들이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MZ세대 ‘탄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MZ세대가 우리 군에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군에도 눈에 띄게 변하는 환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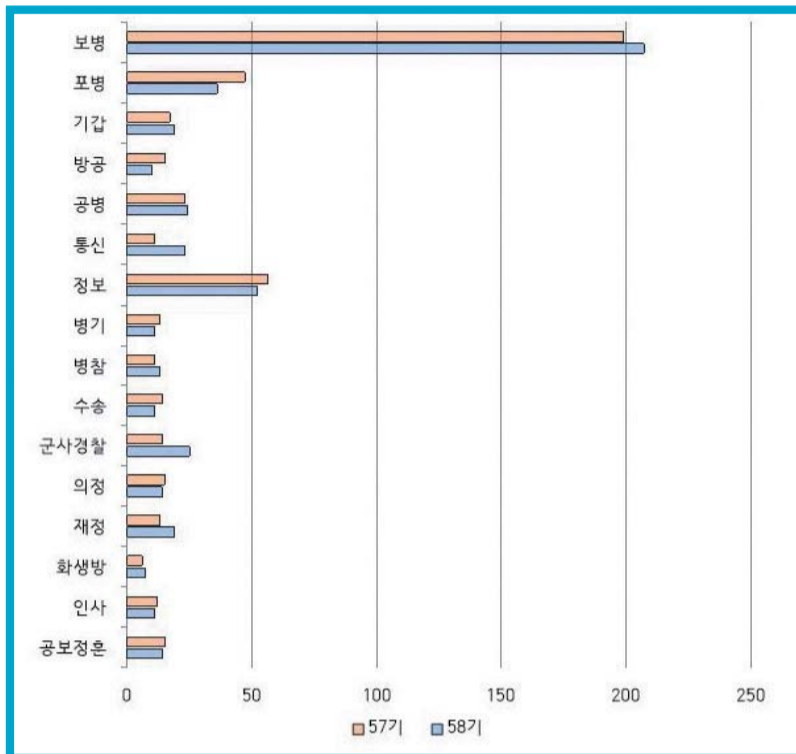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병과 선호도이다. 과거에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등 전투병과가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재정, 군사경찰, 공보정훈 등 비전투병과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최근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MZ세대들은 근무지역, 워라벨, 전역 후 취업 가능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전투병과의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병과를 선호할까? 과거에는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병과에만 희망자가 밀집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보, 의정, 공보정훈, 수송, 병기 등 비전투병과, 전투지원병과 등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생도들의 병과 선호도를 조사하게 된 계기는 ‘기수에 따라 선호하는 병과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다.

4학년인 57기 생도들은 후배 생도들과 다르게 공수훈련과 2차례의 군사 학기를 더 거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식견과 강인한 체력을 겸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학년 58기 생도들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병과를 고려할 것

분이 아닌 ‘MZ세대가 갖춘 특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 생도들의 기수별 병과 선호도 조사

이러한 MZ세대의 특성이 우리 군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비전투병과나 다른 병과들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가게 되고, 특성을 알게 되면서 병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군은 국민을 위해 늘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집단이다. 따라서 MZ세대 고유의 창의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특성은 장점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우리 육군에서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각 병과의 필요성이 발현된다. 본인의 적성과 선호도에 따라 각자 맞는 병과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병과는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병과를 선택하든 생도들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통해

이라고 예상했으나, 조사 결과 기수 별 선호도는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를 기수별 구

전국 각지에서 육군3사관학교를 빛내는 초급장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하계군사훈련 에필로그 (Epilogue)

#### 군사훈련처 교관과 58기 생도들의 대화



58기 기수마크



전술학 교관 서정민 소령

사관생도들이 21년 하계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58기들에게 첫 하계군사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투 부상자 처치, 화생방, 경계, 수류탄, 분대 공격 및 방어 등의 군사훈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장교로서의 덕목을 한 층 더 갖추 수 있게 되었다.

하계군사훈련 에필로그로 교관님이 훈련을 진행하며 했던 생각들과 58기 생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여쭙보았다. 58기 기자생도 김영민, 원동규

SKT 7:43 94%

서정민 소령

충성!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교관님! 저희 58기 생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 가장 기억에 남는 교관님으로 뽑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우선 하계군사훈련이 종료된 시점에서 교관들과 훈련을 기억해준 생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분대 방어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었던 만큼, 이 경험이 앞으로 군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분대 방어를 포함한 모든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58기들을 만나셨을 때 저희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동기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당당히 교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은 교관이 보기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참모총장님의 현장지도 당시 자신감 있게 명령 하달, 지휘 통제 등의 훈련을 수행하는 모습은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생도가 궁금해할 내용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 개인 간 점수의 차등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물론 모두가 훌륭하게 실습에 참여하였고, 직책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죠.

SKT 7:43 94%

서정민 소령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참, 열외한 생도들이 있었고, 이들과 훈련을 빼놓지 못한 생도들이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여 차등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엔 개인평가(필기시험 등)를 우선으로 하여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이마 첫 훈련이다 보니 궁금한 듯 합니다^^ 교관님이 각 중대별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하는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어느 중대의 분위기가 좋았다, 잘했다 하는 대답은 군사훈련 우수중대라는 결과로 대신 하였습니다.

워낙 많은 생도를 짧은 시간에 만나고 오래 지나기까지 했으니 저라도 기억이 안 날 듯합니다. 58기 교육 기간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강이나 훈련 때 힘들어하는 생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교관으로서 제일 힘들고 마음 아픈 순간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교육시간이 짧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점, 단순히 교관이라는 역할을 넘어 군 생활의 선배, 멘토로서 생도들과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점이 있었네요.

SKT 7:43 94%

서정민 소령

저희가 힘든 것에 교관님도 공감하시며 힘드셨다니, 솔직히 예상외의 답변이 나와 놀랐습니다.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하하하. 교관도 생도들이 힘든 게 어떤 기본인지 여러분만큼 잘 아니까요.

그럼 교관님이 느끼신 타 기수들과는 다른 58기만의 특징도 있으니까?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57기 또한 그렇지만, 58기도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입교하여 생도 생활을 잘 헤쳐나가는 기수라는 점이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58기만의 또 다른 특수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특수성! 생도 생활을 넘어 군 생활 동안 화운 58기로서 지켜야 할 마음 기증 중 하나일 듯합니다. 훈련 종료 후 58기에 대한 생각의 변화, 앞으로 기대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교관 또한 무더위 속에서 처음 훈련을 받는 58기 생도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훈련을 잘 마쳐준 생도들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반학을 거치고 다음 훈련 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교관과 생도 모두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교관으로서, 선배 군인으로서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서정민 소령(전술학 교관)

생도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정립하고 뚜렷한 의견을 가지길 바랍니다. 무작정 교리를 외우고 교실에서 잘하여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아닌 이곳에서 배운 전술을 적용하여 여러분의 작전계획으로 표현하고, 구현하는. 그로 인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정예장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과정을 입증해 나가는 예비장교들의 건승을, 여러분의 멋과 낭만, 이름다운 추억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생도 생활을 위해 교관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

참여 후기



57기 국장생도이 경미

독서코칭 프로젝트

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인공 '무민'을 각자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책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독서 프로그램이라 예상했는데, 스스로를 주인공에 이입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며 상당한 몰입이 이루어진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에서 감명과 교훈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꽤 놀랍고 흥미로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주성원 지필의 '일상의 탄생'을 읽으며 차한 잔의 여유, 삶터와 일터, 식탁 위의 즐거움 등 7가지 소재목을 따라 조를 지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5조는 '하루의 마무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각자 특별

한 하루의 마무리를 공유하며 동기, 후배 간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두 번의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마치며 느낀 점은 이번 독서 코칭 프로그램이 단순히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일반적인 독서 함양 프로그램이 아닌 서로의 관심을 끌어내고 삶의 지혜를 알아가기도 하는 즐겁고도 유의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었다. 책이 좋아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책보다 더 넓은 세상을 알게 했던 이번 독서코칭 프로그램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1-2학기를 맞아 학교에서는 '독서코칭'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독서코칭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질문하며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기'라는 목표와 함께 '병영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사고를 함께하며 생각의 범위를 넓히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이번 독서코칭 프로그램은 기존의 독서 함양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님의 코칭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서코칭 프로그램. 그 첫 번째 시간에는 토베 안손 무민 지필의 '무민의 겨울'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는 시



▲ 독서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생도들



58기 기자생도 김 관우

제73주년 국군의 날

전투력을 국내외에 자랑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이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된 이유는 1950년 10월 1일에 국군이 북한군을 몰아내고 38선을 돌파한 것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올해로 73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는 창군 이래 최초로 해병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포항 영일만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실시했다. 대통령의 입장과 동시에 군악대 연주가 흘러나왔고, 도열한 합동 기수단이 기를 내려 예를 표하였다. 이후 국민의례, 국방부장관 환영사, 개인 훈포장 및 부대 표창, 창설 부대기 수여식, 대통령 기념사, 합동상륙작전 시연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중 합동상륙작전 시연식은 우리 국군의 위상과 국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연식으로 상륙군사령관 해병 김계한 소장의 지휘 아래 실시됐다. 작전명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육·해·공·해병대의 첨단 무기로 평화를 수호하는 모습을 시연하였으며, 지상,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일만 상공에서는 E-737, P3C, KC330, F-15K 등 전투기들이 멋지게 날아올라 영공을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해상에서는 상륙돌격장갑차(KAAV) 64대가 전술적으로 기동하는 모습, 능률한 해병대원들이 IBS 소형고무보트에 탑승하여 상륙작전을 시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K-808) 2대를 탑재한 공기부양정(술개)이 이들을 뒤따라 상륙했으며, 육군의 막강한 전투력이자 공격헬기인 아파치(AH-64)는 해상으로 상륙하

는 대원들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합동상륙작전 시연식은 멋지게 마무리되었고, 각 군별로 군가를 패기 있게 부르며 국



▲ 행사에서 임무를 완수한 국군 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있다.

군의 날 행사를 종료했다. 전군이 합동하여 첨단 국방력을 보여준 피스 메이커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의 면모를 보여준 행사였다.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 국궁부, 검도부

58기 기자생도 김시현, 정원표

스치는 바람에도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 바스락 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가을이 다가왔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 어디선가 '쉬익 쉬익' 하는 시원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하니 생도들이 저마다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바리만 봐도 터질 것 같은 팔근육으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들은 바로 국궁부였다. 국궁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국궁부 단체 사진

###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국궁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궁부 부서장을 맡은 57기 4학년 황찬희 생도입니다. 국궁은 양궁과 달리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활과 화살로 쏘는데, 저희는 이런 국궁을 배우면서 심신을 단련합니다.

### Q. 활시위를 잘 당기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A. 활을 잡는 팔의 팔꿈치를 돌려 팔이 굽어지는 것을 막는 연습을 한다면 팔에 힘이 없어도 누구나 강한 활을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 Q. 국궁부만의 장점이 있다면?

A. 국궁은 개인화기인 K2 소총 사격과 호흡법이 매우 유사하고, 또 집중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기 실력을 늘릴 수 있고, "궁도 9계훈"으로 심신을 단련하는데 아주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 궁도 9계훈 : 궁도를 수련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과 방법

### Q. 국궁부에서 대외적으로 참여하는 대회가 있나요?

A. 매년 육사 국궁장에서 사관생도 및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장배 전국대학생국궁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생도들도 매년 참가하여 타사관학교 생도 및 전국의 대학생들과 기량을 겨루었으나,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국궁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계승하고 이를 경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궁도 9계훈'을 실천하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궁부 파이팅!

뜨거웠던 국궁부의 시선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선가 우렁찬 기합 소리와 현란한 스텝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착한 곳은 정무관이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정갈하게 검도복을 갖춰 입은 생도들이 저마다 나무로 된 검을 들고 현란한 스텝과 함께 검술 연습에 한창이었다.

###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검도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검도부 부서장을 맡은 57기 4학년 윤호원 생도입니다. '검도는 예(禮)로 시작해서 예(禮)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도를 꾸준히 연마하면 실력도 높아가고 동시에 예(禮)를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 Q. 검도부 활동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네! 생도들은 검도부 활동을 하며 갈고닦은 실력으로 검도 1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Q. 검도부만의 장점이 있다면?

A. 무도 단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과 몸을 단련함과 동시에 마음도 단련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Q. 검도부에서 대회에 참가하거나 수상한 적이 있나요?

A.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이전 선배 생도들도 꾸준히 수상을 했고, 저는 2019년도에 개최한 "춘계 전국검도대회"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으로 출전하여 개인전 우승을 했습니다.(휴학 후 복학 생도)



### Q. 검도부의 목표가 있다면?

A. 검도부의 모든 인원이 검도 1단과 가을에 열리는 "춘계 전국검도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Q. 마지막으로 검도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하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모두 단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검도부 파이팅!

국궁부와 검도부 생도들은 심신을 함께 단련함과 동시에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생도들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신력의 근간이 아닐까?

## 21-2학기 지휘군무교대 및 충성의식 행사

지난 9월 17일 충성연병장에서 21-2학기를 맞아 첫 지휘군무교대식 및 충성의식이 실시되었다.

지휘군무교대식은 1학기의 지휘군무생도들이 2학기를 새로 이끌어갈 지휘 인원들에게 지휘권을 인수 인계하는 행사이다. 또한, 1학기를 잘 이끌어준 생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2학기를 이끌어갈 생도들을 응원해주기도 하며 서로를 격려한다.

지휘군무교대식이 끝나고, 2학기 첫 충성의식은 새로운 지휘군무생도들로 이루어진 전체 제대가 분열을 실시한다. 분열은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득 찬 사관생도들의 보무당당한 행진이다. 충성의식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과 동시에 굳은 단결력과 드높은 사기를 나타내는 최고의 의식행사이자, 자율적

인 결의를 통해 절차탁마하고 앞으로의 생도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행사이다.



지휘군무교대식

2학기의 시작으로 큰 의미가 있는 행사를 멋지게 마친 만큼 지휘군무 생도들이 생도대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57기 기자생도 지 하은



충성의식 행사중 분열

**칼럼 I 『전쟁영화와 미래전쟁』 책자를 출간하며 : 미래전쟁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1)**

1) 해당 칼럼은 『전쟁영화와 미래전쟁』 책자의 프롤로그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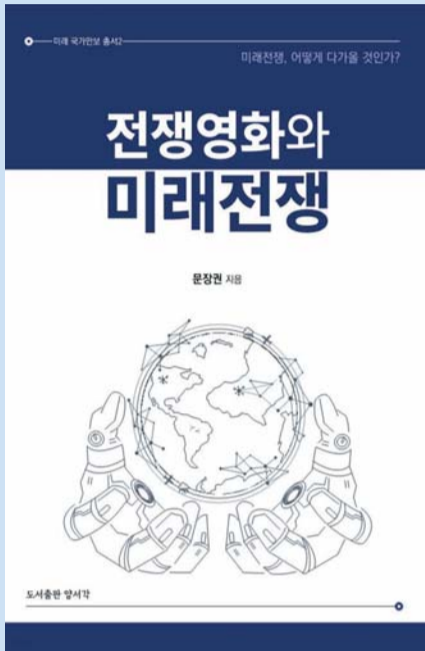
중령 문장권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과  
교수 · 도서관장

**필자의** 2021년은 ‘전쟁’과 ‘군사’ 분야에 몰입하여 웃고 울며, 그리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보내 온 시간이 20여 년이 흘렀음을 상기시켜 주는 해이다. 1999년 약관의 20대 나이에 처음 중성대와 인연을 맺고 ‘전쟁’과 ‘군사’에 심취하여 미래의 길을 고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이제는 ‘전쟁’과 ‘군사’ 관련하여 고민했던 시간이 흘러 전환점(?)을 돌아 다시 마음의 고향인 ‘중성대’에서 ‘미래 전쟁’이라는 주제로 고민한 흔적을 글로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물며, ‘전쟁’, ‘군사’라는 주제와 매일 접하며 생각한 필자에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십분 공감되는 말이다.

필자가 ‘전쟁’ 그리고 ‘군사’ 관련 주제와 깊은 연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1999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 응시하면서부터다. 당시 젊은 20대 나이에 주변 동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큰 고민 없이 지나다가 막상 인생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여러 고민과 주변 지인의 추천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를 알게 됐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운 좋게(?) 합격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명예로운 장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전쟁’, ‘군사’ 관련 주제에 천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전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해당 질문이 필자의 평생 연구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旅程)이 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

‘전쟁’과 ‘군사’와 관련한 지난 20여 년간의 고민과 생각을 담은 이 책에서 주목한 부분은 최근의 전쟁 양상을 반영한 세 편의 영화(‘드론전쟁 : 굿킬’, ‘헌터킬러’, ‘아이 인 더 스카이’)를 소개하면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래 전쟁’의 변화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쟁’을 대비해야 할 군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제언해 보았다. ‘미래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생도들에게 일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전쟁영화에 평소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망해 본다. 미래 군을 이끌어 나갈 생도들을 포함해 젊은이들이 해당 책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군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마음의 고향인 ‘중성대’에서 ‘미래 전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깊은 깨달음을 선사해 준 국제관계학과, 북한학과, 정치외교학과 생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싶다.

**칼럼 II 우리는 모두 다르고 아름답다**



소령 석혜선  
인문학처  
심리학과 교수

**성인지력**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과목의 교재엔 송경재 교수님이 쓰신 서문이 있고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다. “『자기 존재를 규정짓는 모든 정체』라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보라” 곱씹을수록 담백하면서도 본질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문장이다.

필자는 4월에 교수부 전입 후 이번에 첫 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몇 개 과목을 담당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한 과목이 바로 성인지력의 이해이다. 실제로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성인지력,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다.

내가 수업시간에 만나는 생도들도 그러하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한다. 이 교실에서 성인지력이 가장 낮은 사람은 교수 본인이므로 수업 중 불편한 느낌이 들면 0.1초도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 해 달라 요청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업 준비가 치열하다. 필자가 연구 강의를 위해 탐독한 분야는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성행위심리학, 문화인류학자들과 여성학자들의 서적, 그리고 가장 최근의 논문들까지 다양하다. 이토록 공부해도 매 수업 전, 중, 후 긴장을 놓지 못한다. 나의 설익음이 혹여 생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차별에 대한 반성은 분명 의미 있다. 그러나 그것의 연장선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른데, 그리고 인간이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지적 방략인데 오늘날 많은 담론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것을 극복하라고 한다. 기성세

대도 해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불합리를 대물림하면서 말이다.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담론조차 터부시하는 억지를 마치 당연한 듯 강요하는 분위기에 현대인들은 성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는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간 성 불평등론자, 더 나아가 남혐, 여혐의 코드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네 삶의, 두 성이 어우러져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 결국, 이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다. 그러는 사이 현재 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성의 과거 불평등 상황에 집중하고 남성이 약자가 되는 상황을 외면한다. 이것은 내가 여성이기에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테지만, 더 나아가 대다수의 공감을 얻기 무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억압된 의견들은 온라인에 몰려 남혐, 여혐을 이야기한다.



Sex의 어원은 Sexus이다. 이것은 나누다(to cut)는 뜻의 라틴어이다. 신화에 따르면 최초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었는데 그의 능력을 두려워한 신이 반으로 갈라버렸고, 그래서 인간은 처음 한 몸이었던 이성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게 되었다고 한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성을 서로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둘이 화합하고 온전히 제 능력을 발휘하면 신도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런 서로인데 혐오가 왜 말인가. 남혐, 여혐은 어쩌면 온전히 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다는,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의 극단적 표현은 아닐까?

내가 만나는 생도들은, 무수한 온라인에서의 공격과 기성세대의 노파심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열려있다. 타인에게 발생 가능한 아픔과 상처에 민감하고 가까이 이성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여유와 아량이 있다. 이런 그들의 가능성을 활짝 꽃피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지혜를 더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치열히 강의 준비를 한다. 성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무한한 자신을 마음껏 펼칠 57기의 당당한 첫발을 기대해본다.

사회 저명인사칼럼 I

###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 국방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前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

**21세기에**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다. 인류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군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국방이다. 그렇기에 모두는 군대 가는 것을 자발적이기보다는 의무사항으로 헌법에 서 국방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대 가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군대를 마치고 사회에서 일할 때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으로 군대를 재조직화할 수는 없을까?

이스라엘의 최고 중의 최고 엘리트 조직이라고 하는 "탈피오트"가 바로 그런 조직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을 통해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아랍국가들을 전멸시킨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의 신화에 도취된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준 것이 1973년 욘 키푸르 전쟁이다. 1973년 10월 6일 오후 2시에 이집트가 먼저 공격을 하고 이어서 시리아가 공격을 시작했다. 북쪽 골란고원에서 남쪽 시나이사막까지 일시에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고 첫날 전투기 49대를 잃고, 한 달도 안되어 공군 전력의 5분의 1을 잃었다. 무적의 전차 부대는 하루도 안되어 시나이반도 탱크 300대 중 200대를 잃었다. 처참한 패배였다.

참혹한 욘 키푸르 전쟁이 끝나고 히브리대학의 사울 아치프 교수와 펠릭스 도싼 교수가 이스라엘 생존을 위한 재무장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창의성이 최정점에

이르는 20대의 최고 엘리트들을 선발하여 최첨단 무기기술을 개발하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간부후보생들에게 첨단무기기술을 개발하도록 물리학, 수학, 컴퓨터과학 등 4년 학위과정을 3년 만에 집중교육하여 히브리대학에서 학위를 받게 했다. 상위 5%의 인재 중 인성과 협동심을 고루 갖춘 완벽한 인재들을 선발했다. 자존심과 독립심을 강화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과 빠른 학습을 위해 그룹 스터디를 강조했다. 약 25%의 중도 탈락자가 나올 정도의 긴장과 압박의 훈련을 견뎌야 하지만, 무기기술 개발은 실전에서 의미 있는 1%의 차이를 만들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하고 끝없는 실패의 연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신력을 가져야 했다. 공수훈련 등 군사훈련도 특수부대 못지않게 많은 훈련을 기술개발과 동시에 진행했다.



이렇게 훈련된 후보생들이 부대 현장의 경험을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첨단무기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아랍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디지털 아이언 돔'을 개발하는 기술을 만들었다. 전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이 개발되어 군과 민의 사이버 프로젝트인 MASAD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개발된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의 인터넷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스타트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데이비드 슬링(다윗의 새총)'이나 자동광학 검사시스템인 옴트로테크, 세계 최대 인터넷 방화벽 회사 체크포인트, 태양 에너지 회사 코제네라,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인 모비일아이, 군중들 사이에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에어패트룰,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한 웨이브즈 오디오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실리콘 벨리에서 스타트업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탈피오트 졸업생들을 아이디어 머신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특수부대 탈피오트는 군사전략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창업 국가로 탈바꿈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군대조직도 대학보다 더 나은 연구조직으로 탈바꿈한다면 국방과 안보뿐 아니라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국방의 미래를 위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사회 저명인사칼럼 II

### 인생은 10분이다. 10분의 기적을 만들자



**신태균**  
카이스트 겸직 교수 (글로벌 리더십센터), 前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

**인생은** 시간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도 시간 경영은 필수적이다. 인생의 모든 활동은 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

소요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시간의 단위는 짧게는 초, 분, 시가 있다. 중간 단위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이 있다. 긴 시간은 10년, 100년, 1000년이 있다. Decade, Century, Millemium은 이를 표시한다.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는 하루 24시간이다. 대충 시간개념으로는 새벽, 오전, 오후, 한나절, 저녁, 밤중 이렇게도 말한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시간 단위로 일을 도모한다. 하지만 한 시간도 꽤 긴 시간이기때 잘라서 알차게 사용하면 좋다. 치열한 스포츠 경기에서는 분초를 다투기도 하지만 보통 일상에서는 10분 단위가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최소 단위다. 자투리 시간으로서의 한 시간은 길다. 반면 1분은 짧다. 보통은 10분에서 30분 정도 될 것이다.

10분이 남았다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카톡 열람, 문자 보내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10분간 휴식이다.

서구 기업에서는 기본 업무 단위를 30분으로 본다. 면담, 지시, 회의 모두를 30분으로 최적화시킨다. 가히 가장 바쁜 사람들의 비즈니스 타임(Business time) 활용기술이라 할 것이다.

10분이면 할 수 있다. 짧은 글은 10분이면 쓸 수 있다. 통화도 10분이면 충분하다. 메모도 10분, 상호 인사도 10분, 아이디어 구상도 10분, 거의 모든 것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영화도 10분 짜리 하이라이트만 보면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도 10분 단위의 영상이 많다.

세기의 명연설 또한 10분을 넘지 않는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3분을 넘지 않았고, 마틴 루터킹의 "I have a dream(나는 꿈이 있습니다)" 또한 7분에 불과했다. 두 연설을 합하면 10분 정도이다. 10분이 세상을 두 번 바꾼 셈이다.

10분이면 충분하다. 인생의 성패도 10분이 다. 중요한 결정도 10분 정도 고민하면 가닥이 잡힌다. 나머지 시간은 붙들고 있는 시간일 뿐이다. 화

해의 손길도 10분이면 넉넉하다.

인생 10분! 긴장감 있으면서도 뭐든지 충분한 시간이다. 5분 먼저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면 직장생활 성공이다. 10분으로 승부를 보자. 퍼지고 싶으면 10분 간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퍼지자. 10분 집중, 50분 퍼짐. 이렇게 살아도 인생은 성공한다.

**한 번쯤은 꼭 10분이라는 인생의 리듬을 타보자. 인생은 10분이다. 10분의 기적을 만들자.**



# 트렌드 코리아 2021

## <#필환경>

블랙핑크 로제가입은 '리포메이션' 원피스 제품



이수진박사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언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흥미로운 글이 있었다. 친환경 캠페인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70억 명이 함께 하는 조별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내용의 글이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혹은 '나 혼자 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라는 수동적인 개인의 집단화는 환경 문제를 가장 악명 높은 조별 과제로 만든다는 것이다.

친환경은 언제나 중요한 사회적 의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필(必)환경 시대다. 환경을 배려하는 친환경 소비가 '하면 좋은 것' 즉, '선택'의 문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문제로 바뀌었다.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했던 연설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래 세대에게 환경 문제는 단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생존 그 자체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등에 불 떨어진 필환경을 '프리라이더(free-rider)' 없는 성공적인 과제가 되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쉽' 환경이어야 한다. 필환경 소비 실천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쉬움'이다. 음료수를 마시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 우리는 라벨을 떼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 선택의 순간 편리함의 유혹에 무너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라벨이 떼어져 있다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요즘 소비자들의 필환경 소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해져 보다 쉽게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롯데칠성음료가 무라벨 생수 '아이시스 ECO'를 선보인 이후 '무(無)라벨'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마트의 경우 무라벨의 2021년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으며, 홈플러스도 무라벨 생수를 출시한 뒤, 한 달 만에 134만 병을 판매했다고 한다. 쉽게 필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것이다.



출처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친생물의 아이시스'를 판매했다고 한다. 쉽게 필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힙' 환경이다. 요즘 소비자들에게 필환경은 당위적인 '시민운동' 혹은 '캠페인'의 개념을 초월했다. 그저 '친환경'이 멋있기 때문에 소비하고, 이러한 소비를 하는 자신이 '힙(hip)'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로웨이스트샵'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미적으로도 훌륭하다. 여타 일반적인 제품들처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역시 친환경의 선두 영역 중 하나는 패션 분야다. 커피 찌꺼기로 청바지를 만들고, 폐그물망으로 알록달록한 색상의 모자가 탄생하기도 한다. 착한 옷의



출처 마리끌레르 "제로웨이스트샵 지구샵의 대표적 물품"



출처: 인스타그램, '리포메이션'

재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찐' 환경이다. 소비자들의 노력으로 필환경 트렌드는 진일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특히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을 경계해야 한다. 그린워싱이란 영화나 연극에서 흑인 역할을 분장

한 백인이 맡아 흑인의 존재감을 지우는 '하이트 워싱'에서 유래한 단어로,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지 않지만 이를 표방하는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대기업인



출처: 뉴시안, "화장품 위장술에 속다"

네슬레의 캡슐커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8에 달하는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알루미늄을 위해 여러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지난해까지 알루미늄 용기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9%에 그쳐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한 화장품 회사가 포장지에는 페이퍼보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그린워싱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는 종이 용기라 믿고 구매했지만, 사실은 기존 대비 플라스틱 저감 제품이었으며, 안에는 플라스틱병이 있었다. 해당 기업은 제품 이름으로 인해 용기 전체가 종이 재질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다고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실 필환경의 성공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가려내기 어렵다. '찐' 환경 여부를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 개인적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필환경 소비를 하고 있음을 믿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필환경은 이처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이루어 낼 수밖에 없다. '70억 명이 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견제하며 또 믿어가며 나아가야 한다.

# 어떻게 볼 것인가?

## 좋은 사진을 위한 7가지 구도

박은광(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조교수)



사진에서는 촬영자가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사각형 형태의 프레임에 담아내기 위한 수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진의 문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촬영법 또는 구도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법은 사진 촬영을 막 시작하는 초심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인 사진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관객에게 전달하기에는 선으로 구분 짓는 형식의 구도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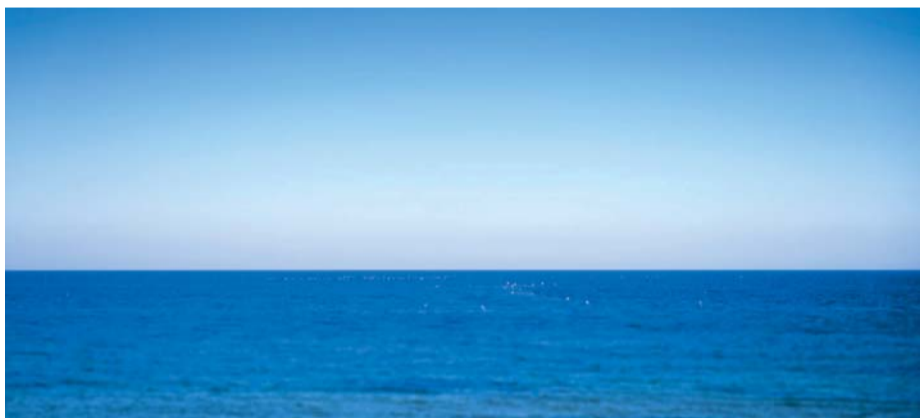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인터넷과 사진 교재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선과 곡선으로 프레임을 구분 짓고 있는 전형적인 구도법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촬영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라는 기준으로 사진 촬영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enter, Level, Pattern, Cross, Focus, Position 그리고 Symbol이라는 7개의 분류법을 사용한다.

**1. Center** - 사진은 프레임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관객은 사진이 제시하는 사각의 프레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시각은 중심으로 가장 먼저 이동한다는 점에서 프레임의 중앙에 무엇을 배치하여 촬영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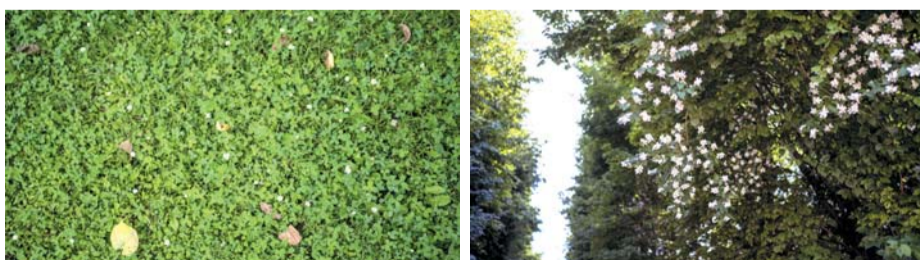
<그림 1,2> 프레임 중앙에 대상을 배치함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된다.

**2. Level** - 사진의 프레임에서 구분선을 찾는 것도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프레임 안에서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면 관객은 시각적 평안감 또는 촬영 대상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 3> 수평선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분리하는 방식의 구도법이다.

**3. Pattern** - 세상에는 다양한 사물과 형태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 대상들 간의 구조적 결합을 통해 사물이 패턴화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촬영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바닥에 흩뿌려진 낙엽들 또는 꽃이 피어있는 모습들은 일반적인 관찰의 방식으로는 패턴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진이라는 매체는 대상을 사각의 프레임에 담는다는 특징을 가졌기에 촬영자가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대상의 형태와 패턴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4,5>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과 피어있는 정원의 꽃을 프레임에 한정시켜 패턴을 발견하였다.

**4. Cross** - 사람들이 지나치는 모습 또는 건물들의 배치에 따른 교차점을 찾는 것도 사진의 좋은 구도 중 하나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카메라와 함께 계속 이동하며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카메라는 무한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촬영, 구도법은 사진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좋은 방식이 된다.



<그림 6,7> 길을 지나는 사람의 교차되는 모습과 건물의 교차를 통해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5. Focus** - 카메라는 조리개의 조절을 통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또한, 이것의 변경을 통해 포커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같은 장면이라도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 형태와 감각은 변한다. 촬영자의 눈앞에 있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자유로운 변경을 통해 그 형태의 변경을 체험해 보는 것은 사진 실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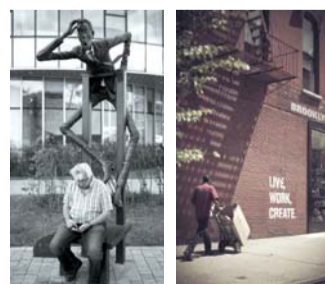
<그림 8,9> 대나무숲 사진, 뒤에 있는 꽃에만 포커스를 두어 꽃의 색감과 형태를 동시에 보여준다.

**6. Position** - 같은 대상을 찍더라도 그것을 프레임의 어느 부분에 두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촬영자가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초급자에게는 순간의 포착을 위한 빠른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촬영 대상의 위치를 계속 변경하면서 어떻게 사진이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구도법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0, 11> 길매기와 섬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 사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7. Symbol** - 세상에는 각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촬영 대상들이 존재한다. 사진은 그들이 가진 의미를 매우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기에 그것을 대상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유한 의미를 가진 대상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의 창출도 가능하다. 이 구도법을 위해서는 촬영 대상의 고유한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2, 13>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쳐다보는 조형물, 일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문구가 공존한다.

위 구도법들은 필자가 그동안 촬영한 사진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분류한 것이다. 이는 어떠한 기준으로 촬영자가 독자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방법들은 촬영자들이 기존에 제시된 구도법에 얽매이지 않고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 공감(共感)하는 소통(疏通)하기

## 동문(同門)의 소리 1

김영민 소령(진) 제23보병사단, 3사 47기)



2010년 1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영천의 동장군과 맞서 싸우며 충성대의 문을 두드렸던 청년은 각고의 노력 끝에 멋진 소위로 임관하였고,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군 생활을 거쳐 영관장교로의 진급을 앞둔 중견간부가 되었다. 그러던 중 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리더십 코칭>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을 받으며 와닿았던 부분이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독성 리더십에 대해 생각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소통하기의 중요성이다.

매년 리더십 센터에서 실시하는 리더십 진단결과를 분석해 보면, 부하 10명 중 1명은 '독성 리더십'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독성 리더십'이란 조직과 사회를 파괴하는 리더십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폭력성(언어

포함), 권위주의, 책임회피, 잘못된 무지(無知)이다. 참모부서장과 포대장 등 여러 임무와 직책을 수행해 오면서, 나는 '독성 리더'였는가? 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결론짓지 못했다. 설령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당시 나의 행동과 말이 조직과 전우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너무 앞만 보며 목표지향적으로 달려왔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위로 임관하며 가졌던 초심(初心)을 가다듬는 동시에 나 자신의 과거 언행을 곰곰



이 생각하며 반성할 수 있었던 진중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소통하기'라는 시간이었다. 통상 리더십 진단에서 리더(본인)와 부하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소통(疏通)'이라고 한다. 리더(지휘관)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부하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에는 ①막히지 않고 잘 통함, ②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뜻이다. '소통이 잘 된다'라는 말은, 말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청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여 서로의 오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감하는 소통하기'란, 소통에 앞서 '상대방을 공감(상대방의 욕구와 느낌을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된 상황에서 소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통보다 훨씬 더 깊고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소통으로 오해가 없음을 물

론 상호 진중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드라마 'D.P.'에서의 다소 적나라한 병영감동 모습으로 인한 일부 오해도 있으며, SNS에서 이슈가 되는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라는 채널 등에 군과 관련된 아쉬운 소식들이 종종 전해질 때가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조금만 서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소통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리더십 코칭을 받으며,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진심과 정성으로 부하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마음으로부터 동(動)하여 부하를 움직이게(따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았다. 이를 말이나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독성' 없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을 받은 시점을 기하여 나부터 당장 바뀌리라 다짐하였다. 더불어 이 글을 읽는 모든 장병이 '공감(共感)하는 소통(疏通)'으로 상·하급자를 포함한 부대 구성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멋진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 특이이력 졸업생도

홍PD와 함께하는  
**크라उन3사**  
#8

3사관학교 여생도 최초의 기갑장교 상위 0.01%의 소대장에게만 주어지는 동훈상 수상자

**강유정** 중위  
육군3사관학교 54기

Q. 2019년 여생도 최초 기갑장교로 임관, 2020년 3사관학교 출신 여군 첫 동훈상 수상까지,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비결은?

'최초의 무엇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적은 없다. 그냥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했고, 재미있으니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 "최초"가 된 것 같다.

Q. 강유정 중위가 작년에 수상한 "동훈상"은 어떤 상인가?

육군 전투병과 소대장에게 주는 전쟁 영웅상으로 1972년 베트남 전투에서 활약한 임동훈 대위의 희생정신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중위급 이하 장교가 받을 수 있다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매년 14명을 선정한다.

Q. 생도생활과 지금의 생활, 어떤점이 다른가?

가장 다른 것은 "책임감"이다. 생도 때에는 다르게 지금의 생활에서는 나의 사소한 실수가 부하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Q. 앞으로의 목표는?

최근 국방어학원 고급영어과정에 선발되어 약 6개월 간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여 군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많이 알아야 필요한 일을 잘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정표이자 롤모델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All For One, One for All!

## 동문(同門)의 소리 2

이 다찬 대위(제73보병사단, 3사50기)



“하나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이 문구는 알렉산드르 뒤마의 작품 《삼총사》 마지막 장면에서 달타냥과 삼총사 무리가 철가면을 구하기 전 함께 칼을 맞대고 외치는 명대사이다.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로서 이 대사를 처음 접하고 군인의 사명감과 전우애에 대하여 뜨거운 응어리짐을 느끼게 되었는데, 모두가 하나로, 하나가 모두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군인에게 전우애로 새겨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부분이 각자에게 새겨져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킴이’로서 국민을 위해, 전우를 위해, 위기의 상황이 당

면할 때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가 모두를 위하여, 또 하나를 위하여,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철두철미한 무리가 있다. 바로 미어캣 무리인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한 마리가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무리가 천적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순서대로 경계근무를 서며 무리를 보호한다. 이들은 개인이 조직을 위해 스스로 희생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기꺼이 먼저 위협에 노출되어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내게는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삶의 질서가 있고 규

칙이 있으며, 사명감이 있다. 아무래도 생존을 이어가는 중에 ‘하나를 위하여’와 같은 지식을 대자연에서 습득하였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 군의 기본이념으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 군대는 ‘내가 바로 부대를 대표하는 군인’이라는 자긍심을 개개인에게 주게 될 것이고 매 순간에 스스로와 본인이 속한 부대를 위하게 되는 자랑스러운 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군 생활을 이어가는 지금에 각종 성 관련 사고와 인명사고, 다양한 사건 사고의 보고를 보아오면서 군 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19’라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전염병 확산까지 일어나 어느 정도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한다.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도 들었다. 각자의 가슴속에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 부대에서도 각자 개개인의 용사를 바라보는 시

선이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중대장의 존재 이유는 부하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휘관이 아무리 부하 용사들을 향해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전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우리는 부하를 잃어서는 안 되며, 부하들의 롤 모델이 되고, 꿈을 갖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부대원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서슴없이 경청하고 응어를 풀어주어야 하며, 인격존중과 헌신적 봉사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All for one, One for all.” 내가 부대를 위하고, 부대가 용사를 위하는 것,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가 모두를 위할 때, 달타냥과 삼총사가 칼을 맞대고 맹세하였던 것처럼, 그 뜨거움이 우리 군에서도 강한 결속으로 피어날 것이다.

## 1기 임원 총동문회 방문

3사 1기 임원(전봉열, 광형근, 이기권)이 지난 10월 6일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 행사에서 1기 임원들은 한동주 총동문회장(14기)과 함께 2022년 재향군인회 선거, 총동문회관 마스터플랜, 모교 후배들의 진급 소식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모금 운동을 통해 1기 임관 60주년 행사 시 모교 육군3사관학교에故 차성도 중위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함께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3사 총동문회**

\* 3사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들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 좌측부터 이기권(1기), 전봉열(1기), 한동주 총동문회장(14기), 광형근(1기), 서정열 사무총장(20기), 유진권 사무국장(24기)

## 총동문회 28기 회장단, 회관건립투자금 전달



▲ 좌측 4번째부터 28기 회장이주, 부회장 최시철, 사무총장 전용남, 기획국장엄재관

3사 28기 동기회장이주, 부회장 최시철 등 동기회 4명은 9월 11일 동문회를 방문하여 회관건립투자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회관건립투자금을 전달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올해 임관 3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나누며, 앞으로 있을 동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3사 총동문회

##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 군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권지민 소령(진)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권지민 소령(진)이 연세대학교의 대학원생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선도할 우수연구성과 도출’ (Idea Incubating Fund)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 IF(Idea Incubating Fund) 사업 : 대학원생의 창의적, 탐구적 연구를 사전 지원, 연구

수월성 제고 및 연구의욕을 고취해 연세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선도할 우수연구성과를 도출할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

권지민 소령(진)은 현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로 개인 지원의 개념이 아닌 ‘우선 선발’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정치학과에서 유일하게 우선 선

발 유형으로 최종 선발되었으며, 군 위탁생 중에서는 최초로 선발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권지민 소령(진)은 현재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유용되는 이론들과 방법론을 접목하여 남북한을 비교하는 연구를 주된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대학원으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아 보다 성과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주무관 길진규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1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1. 8. 25 ~ '21. 10. 23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4억 3천만원(2021.10.23 기준)

### ■ 3사관학교 발전에 동참하는 특별기부자

이희범(육사#41) 2(40), 신상범(육사#45) 2(109), 김호길(육사#48) 2(5), 두석주(육사#51) 2(194), 이우진(육사#54) 2(66), 조상근(육사#56) 2(139), 변용성(육사#58) 2(105), 이귀현(육사#58) 2(99), 이주실(육사#58) 2(84), 김대영(육사#59) 2(172), 김진찬(육사#61) 2(69), 홍희종(육사#61) 2(101), 오민경(육사#65) 2(44), 오범진(육사#65) 2(22), 홍인재(육사#65) 2(34), 문준호(육사#67) 2(45), 이진우(육사#68) 2(44), 조지웅(육사#68) 2(6), 권성진(육사#69) 2(32), 한덕수(학군#26) 2(111), 남기웅(학군#29) 2(16), 구희곤(학군#32) 2(109), 서필석(학군#34) 2(16), 임문택(학군#34) 2(10), 이두진(학군#35) 2(22), 곽홍렬(학군#37) 2(34), 송경재(학군#37) 2(128), 김나람(학군#47) 2(35), 정우람(학군#46) 2(22), 이세훈(학군#48) 2(27), 홍현신(학군#48) 2(25), 나상철(학군#49) 2(19), 윤정훈(학군#50) 2(31), 이선호(학군#51) 2(14), 최재호(학사#29) 2(128), 이준수(학사#35) 2(112), 김기호(학사#37) 2(12), 에한석(학사#37) 2(30), 윤경주(학사#46) 2(18), 임도현(학사#54) 2(107), 구주현(학사#55) 2(30), 박수영(학사#56) 2(22), 성현애(학사#56) 2(50), 강진선(학사#57) 2(17), 심정현(학사#58) 2(38), 임채훈(학사#55) 2(53), 김형태(간부#22) 2(59), 강찬영(군중#61) 2(34), 김소현(여군#46) 2(23), 최은정(간사#38) 2(43), 송소연(간사#58) 2(24), 이대희(준위) 2(33), 진정철(원사) 2(77), 류재운(군무원) 2(196), 안영주(군무원) 2(46), 양성우(군무원) 2(68), 유정호(군무원) 1(20), 이수진(군무원) 2(14), 정혜란(군무원) 2(25)

### ■ 졸업·재학생도부모('21.8.25~'21.10.23 기부현황)

####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10), 백인숙(#47 모) 2(39), 김중국(#41 김성준 부) 10(370), 조경해(#45 황정태 모) 5(815), 성동모(#50 성열환 부) 2(208), 안순봉(#51 박상응 모) 20(980), 김현미(#52 오치원 모) 1(50), 이영미(#52 황성규 모) 6(304), 정정화(#52 조강현 모) 1(343), 박일심(#53 정필승 모) 4(130), 이영빈(#53 오경철 모) 2(48), 조정숙(#53 유영빈 모) 2(126), 윤명남(#54 이지호 모) 5(275), 홍성은(#54 홍동민 부) 1(238), 유현구(#55 유경운 부) 2(134), 서완수(#55 서지찬 부) 4(86), 이찬범(#55 이윤성 부) 10(60), 정원섭(#55 정준영 부) 2(120), 송학빈(#56 송용준 부) 2(66), 정희숙(#56 배용휘 모) 20(1,200)

▶ 재학생(4학년/57기) 학부모(입금자 성명)  
강혜영, 김경남, 김근택, 가연자, 김순말, 박경석, 박동현, 심영선, 양내석, 오유미, 이동희, 이운주, 임승찬, 전영우, 정재현, 지마리아, 한성희

▶ 재학생(3학년/58기) 학부모(입금자 성명)  
구향분, 김도희, 박종현, 양미선, 장경목, 진경화, 황보순호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내기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21.8.25~'21.10.23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2(154), 남훈조 2(1,345), 임관택 2(82), 최익환 2(84)
- ▶ 9기 김현기 3(1,187), 권영호 5(425), 윤지환 6(150), 최병학 5(1,240)
- ▶ 10기 오정석 20(120), 최영돈 500(7,500)
- ▶ 13기 문성목 10(250)
- ▶ 14기 김종환 1(58), 안호 40(1,910), 이순진 20(820), 이용진 20(280)
- ▶ 15기 김성연 2(527), 김철수 500(1,000)
- ▶ 16기 원홍규 6(318), 유영집 1(25), 윤영식 10(250), 이종우 1(161), 황병태 2(31)
- ▶ 18기 구연덕 1(131), 금용백 6(576), 이기환 2(27)
- ▶ 19기 이경희 1(174), 이종형 6(259), 이창효 6(582), 임영갑 10(170), 홍성식 2(197)
- ▶ 20기 김윤희 1(68), 서정열 2(485), 박권순 2(150)
- ▶ 22기 권순태 2(55), 김면수 5(75), 이진성 2(282), 박철규 300(300), 정경호 1(46), 조태환 1(143), 천병규 10(440)
- ▶ 23기 김태일 2(231), 신영찬 2(74), 오승욱 2(266), 최승환 1(8), 허강수 4(283)
- ▶ 24기 곽종만 4(56), 권극락 4(288), 권오봉 1(215), 김도협 2(234), 김성래 2(32), 남용구 4(283), 모경원 2(228), 박세철 2(73), 방성대 2(83), 안연준 1(96), 이문희 2(97), 정정현 2(193)
- ▶ 25기 김남용 2(136), 김협동 2(104), 문봉성 2(154), 이종현 2(53), 장광선 6(384), 장무수 2(51), 전희준 2(307), 조재희 2(125), 홍은표 1(201)
- ▶ 26기 고창준 10(280), 서채원 16(39), 유근환 1(37), 이덕우 1(128), 이완주 4(133), 이태인 4(64), 임우영 2(246), 장용빈 2(125), 함윤식 4(9)

- ▶ 27기 김덕중 2(70), 김성오 4(34), 김용범 4(24), 김지덕 2(24), 김호복 8(264), 석수열 2(47), 안병욱 2(171), 원희문 10(255), 이희순 1(241), 정월균 2(46)
- ▶ 28기 전태환 200(1,000), 권승영 1(26), 권양철 2(111), 김진길 2(82), 김창현 1(167), 박기수 2(93), 박용섭 4(177), 서청수 2(174), 유정일 2(44), 윤석찬 1(142)
- ▶ 29기 김강식 2(247), 김광석 4(6), 김용식 2(74), 김태영 4(34), 박성훈 2(155), 박태용 2(134), 이상일 2(100), 이의규 2(117), 임국기 20(30), 임성호 2(166), 최인섭 2(128), 최영태 49(160), 현태식 2(152)
- ▶ 30기 김종권 2(86), 김효성 2(46), 남진오 2(56), 이병길 2(21), 이진 2(151), 임상달 2(121), 주경호 1(115), 홍성범 2(39), 함민호 2(102)
- ▶ 31기 권동호 4(64), 김민식 4(101), 김영태 2(184), 염항수 2(138), 이재춘 2(212), 이훈복 2(50), 최대집 2(48), 전경인 2(35)
- ▶ 32기 권관덕 2(316), 김화용 2(115), 박정규 50(50), 사인우 2(138), 송진수 3(80)
- ▶ 33기 권해욱 2(22), 김남식 4(170), 김상선 4(152), 김성근 4(148), 김현규 4(396), 남석진 2(140), 노일 6(170), 안경일 2(237), 안준영 6(125), 이정표 3(83), 신덕호 1(1), 조재봉 2(112), 홍종원 1(32)
- ▶ 34기 김기수 2(183), 김윤성 1(45), 김재호 5(5), 김홍식 6(441), 이무이 2(407), 임창훈 2(82), 정창근 2(108), 정춘환 2(59), 정몽민 2(199), 조수창 2(183), 홍영기 2(27)
- ▶ 35기 김경철 2(11), 김병수 2(84), 김수열 2(71), 박병준 6(320), 박상우 2(88), 박시근 2(185), 송명성 4(64), 이문희 2(152), 이호순 6(16), 임창규 2(109), 장춘삼 2(146), 전성광 2(42), 정영석 2(103), 정호준 4(98), 하종수 2(27), 한종훈 4(371)
- ▶ 36~56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 ▶ 57기 김도윤 10(100)
- ▶ 58기 정다은 100(100), 황영호 3(21)

발전기금 참여안내

입금계좌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8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

